

알리는 말씀

1. 송구영신예배에 오신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송구영신예배 감사헌금은 주일예배(1/1)때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새해 말씀 생활을 위한 말씀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4. 2023년 달력을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로비에서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새해 아침에 드리는 기도-존 베일리]

제 영혼의 영원한 아버지

오늘 저의 첫 생각이 당신에 대한 생각이게 하시고,
저의 첫 충동이 당신을 예배하려는 행동이게 하시고,
저의 첫 발언이 당신 이름을 부르는 것이게 하시고,
저의 첫 행동이 당신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게 하소서.

순수하게 생각하고, 적절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믿음직하게 부지런히 일하고, 겸손히 자신을 평가하고,
존중과 관용으로 남을 대하고, 지난 날의 거룩한 추억들을
고히 간직하고, 제 운명이 영원토록 당신의 자식임을 잊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오, 하나님.

지금 저에게 고요한 마음을 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잠이 저를 덮을 때까지 제 생각 안에 머무르시고,
별 것 아닌 일로 너무 근심하지 않게 하소서.
나쁜 꿈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내일 아침 가벼운 몸으로 일어나 또 다른 하루를 준비하게 하소서.

2022년 표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



담임목사 : 정용한

부목사 : 김충진 교육전도사 : 임지훈
지휘 : 오상용 반주 : 민소영

송 구 영 신 예 배

밤 11시 00분

인도 : 김충진 목사

*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전 주 반 주 자
예 배 사 인 도 자
*찬 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301장) 다 같 이
*교 독 기 도 다 같 이

인도자: 창조주 하나님, 2022년 한 해도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 마음에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함과 성실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같이: 더 겸손하지 못했고, 더 참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밝고 부드러운 생명의 말보다는 거친 말로 아픔을 준 일도 있었습니다. 좌절된 욕심 때문에 스스로 상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인도자: 새해 첫날의 결심들이 많이 퇴색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창문을 닫기는 게을리 하면서 다른 이의 마음이 더럽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처음에 지녔던 진리에 대한 갈망은 기도의 밑거름이 부족하여 열매로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다같이: 용서의 주님, 나그네 인생길을 조급하게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헛된 우상이 자리 잡지 않도록, 수 없는 욕망에서 탈출하게 하옵소서.

인도자: 코로나19와 이태원참사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로해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다같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을 인도해 주시고, 아픔을 당한 이들의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감으로 이 땅에 치유와 회복이 이뤄지게 하옵소서.

인도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전해 주시고, 16년 전 이곳에 삼애교회를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같이: 2023년 새해에도 삼애교회를 축복하셔서 온 교우들이 참 생명의 숨을 쉬며 영적인 섬을 누리게 하시고, 삼애정신을 실천하여 이웃과 한국 사회를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인도자: 주여, 다가오는 새해에는 부디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걸어도 지치지 않는, 뛰어도 고단치 않는 힘을 주옵소서. 인생의 험한 길을 감당하게 하시고, 부딪히는 돌덩이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게 하옵소서. 어디든 주님과 함께 가게 하옵소서.

다같이: 새해에도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지금의 시련을 극복하여 발전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선용하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영성의 뿌리가 깊이 내리게 하옵소서. 제한된 삶의 시간을 더욱 말씀으로 채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 동 기 도 인 도 자

1.자신과 가정 2.교회 3.나라와 민족

예 배 기 도 아버지 당신 손에 다 같 이
성 경 봉 독 전도서 3:1-15(p.930) 인 도 자
말 씬 증 언 “시간의 주인” 정용한 목사
묵 상 기 도 다 같 이
*찬 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304장) 다 같 이
*축 도 김충진 목사
*후 주 반 주 자